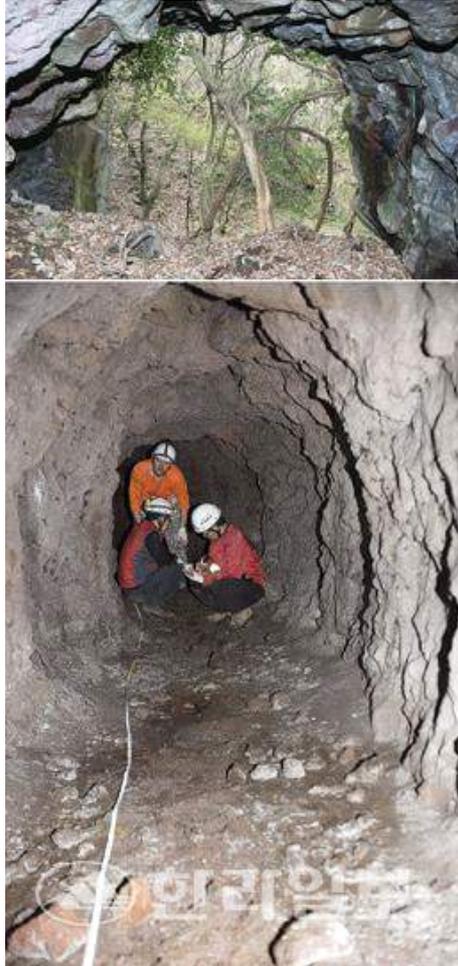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3)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 (2)96사단 주둔지-2)산천단섯굴치편  
지하요새 연상 대형갱도 실체 첫 확인

입력 : 2007. 04.19. 00:00:00



▲제주시 산천단 속칭 도깨비도로 인근 계곡에서 확인된 갱도입구(위)와 특별취재팀이 갱도내부에서 조사(아래)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 96사단 예하 292연대본부 자리**

**근대문화유산 등록 등 대책 시급**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주둔지로 알려진 제주시 산천단 일명 도깨비도로 인근 계곡에서 대규모 갱도진지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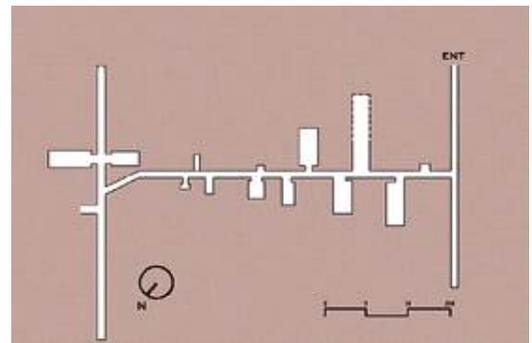
본보 특별취재팀이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삼의양오름 및 산천단 일대를 조사한 결과 길이가 10여m에서 부터 2백여m에 이르는 갱도 11곳이 무더기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갱도는 대부분 계곡을 향해 직선형으로 구축됐다.

이 가운데 일명 '섯굴치내'라 불리는 계곡에서 확인된 대형갱도는 길이가 2백여m 이상 되는데다, 그 내부에 크고 작은 공간 10여 곳이 만들어져 마치 지하요새를 방불케 한다.

대형 갱도진지는 입구가 남남서 방향으로 나 있다. 갱도는 길이가 45m 정도에 이르는 입구통로를 따라 진입하면 오른쪽으로 난 주통로로 연결된다. 주통로는 일부 구간이 송이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함몰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주통로에는 10개의 공간이 갱도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이어진 통로에도 두 개의 큰 공간이 마주보는 형태로 형성돼 있다.

갱도 중간 중간에는 쓰러진 갱목들이 놓여 있어 당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갱도 내부 바닥에 쓰러진 갱목에는 이음쇠 역할을 했던 '꼭쇠' 등이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곳 대형갱도 내부의 공간은 규모가 큰데다 구조 또한 마치 방처럼 꾸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곳의 갱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곳의 갱도 공간은 대부분 직선형이나 통로식으로 만들어진데 비해 이곳은 가로 세로가 2대1에서 3대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 공간은 대부분 장방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갱도 내부의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이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실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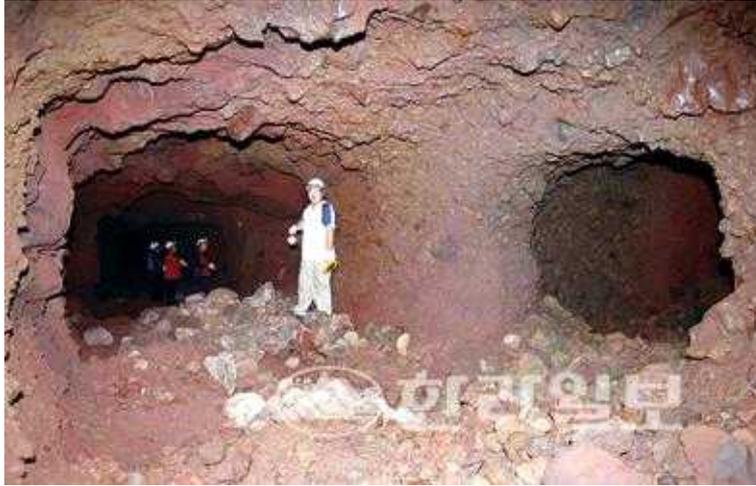
▲도면

산천단 일대의 대형 갱도에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또 어떤 용도로 이용했을까.

일본군이 남긴 '제58군배비개견도' 등에 따르면 산천단 일대는 제96사단 주둔지로 표시돼 있다. 사단사령부 인근 셋굴치 일대에는 292연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이 인터뷰한 안재만씨(1931년 생·제주시 삼도2동)도 "산천단 일대에 제96사단 사령부가 주둔했었다"고 증언했다. 또 "도깨비도로 인근 셋굴치내에는 292연대가 주둔했고, 그 주변에 기마부대를 비롯 일본군들로 넘쳐났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안씨는 또 "셋굴치내의 큰 굴(갱도)에는 실제 일본군들이 살았었다"며 "갱도 내부 공간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갱도 내부 상황과 안재만씨의 증언에 비춰볼 때 '셋굴치' 대형갱도는 일본군 96사단 예하 292연대 병력과 관련된 군사시설이자 연대본부 주둔지임을 알 수 있다. 갱도 내부의 큰 공간들은 292연대본부의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산천단 인근 계곡인 섯굴치내에서 확인된 대형갱도 내부



▲섯굴치내 대형갱도 내부 바닥에 당시 설치됐던 갱목들이 널부러져 있다.

대형 갱도 이외에도 섯굴치내 양쪽 단애면에는 10~40여m 길이의 갱도가 엇갈리면서 구축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섯굴치'의 갱도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군 96사단 및 그 예하 연대병력의 주둔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현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껏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오랜 기간 무관심속에 방치되면서 훼손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대문화유산 등록 등 당국 차원의 보존조치가 하루빨리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